문화포교 아이콘 '선재전승단' 3기 출범

부산불교 대표 행사서 불교문화 홍보 앞장

2월 24일 삼광사서 출범식
10개월간 연등회·팔관회 등
새싹불자 참여해 불심 다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제3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출범식. 지도법사 덕중 스님과 전승단 어린이, 부모, 지도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전통문화의 세대를 잇고자 출범한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이 3기를 맞았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은 불교문화 체험뿐 아니라 부산연등회와 팔관회 등 부산불교 대표 행사에서 불교문화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2월 24일 삼광사 문화관에서 '제3기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출범식'을 봉행했다. 출범식에는 문화전승단 지도법사 덕중 스님과 김진희 운영회장, 문화전승단 어린이 및 부모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지도법사 덕중 스님은 "앞으로 문화전승단 여러분은 10개월가량 다양한 활동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배우고 익히게 될 것"이라며 "착한 마음을 내고 실천하는 어린이를 선재동자라고 한다. 보리심을 내어 불자 어린이답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문화전승단은 2022년 출범해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연등회 및 팔관회 등 대표 행사에 동참하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연등회에서는 호기놀이를 선보여 불교문화를 알렸으며, 연등행렬에도 함께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특히 직접 등을 만들고 체험하며 불교문화가 가진 우수성을 나누는 데 앞장섰다. 이뿐 아니라 팔관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계를 받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문화전승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통등(燈) 체험, 부산연등문화제 개막공연, 부산연등회 연등 행렬,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호국성지 탐방,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2024 팔관회 선재동자 수계법회, 불교성지 탐방 등에 동참한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문화전승단 출범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이어질 부산불교 주요 행사를 안내했다. 전통등 강습회는 4월 6~7일, 4월 13~14일 총 2차에 나눠 닥밭골 한지체험관에서 진행된다. 강습회는 순수 전통 방식과 재료를 활용해 전통등 제작기법 보급과 전승을 위해 기획됐다. 제작한 전통등은 특별전시에서 부산시민과 불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형전통등 전시 및 각종 체험 공연이 마련되는 부산연등회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회는 5월 1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진행되며, 자비나눔 및 실무자 회의, 팔관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금강불교대학 졸업생 76명 배출

삼광한글학교 입학 · 졸업식도



부산 삼광사 금강불교대학(학장 영제 스님)은 2월 25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2023학년도 수료식 및 2024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천태종 총무원 교무부장 도웅 스님을 비롯해 졸업생과 입학생 및 가족들이 동참했다.

졸업자는 교법사과 32명, 불교학과 44명이며, 입학생은 교법사과 48명과 불교학과 중급과정 52명, 초급과정 92명이 등록했다. 수료생들은 부산금강불교대학 발전 장학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학장 영제 스님은 훈사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배워 불제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신행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인재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는 같은 날 지관전에서 '삼광한글학교 제31회 졸업식 및 제32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졸업생 33명에게 졸업장을 입학생 60명을 허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정진 300만독 308일 기도 입재

부산 광명사, 12월 23일 회향



천태종 부산 광명사(춘광 주지 스님)가 2월 21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광명사 일심청정 관음정진 300만독 308일 기도'를 입재했다.〈사진〉

광명사는 이번 법회를 통해 관세음보살 정진으로 정각을 이루고 불자들에게 성불의 길을 열어 보인 제2대 천태종 종정 대충 대종사의 높은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대충 대종사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수행 정진하는 기회로 삼아 지혜롭고 행복한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염불삼매의 환희와 미묘한 법을 체험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말했다.

관음정진 삼백만독 기도는 입재 후 12월 23일 회향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5회 천진불어린이합창제 성료

전국 11개 사찰 합창단 참가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가 2월 25일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5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사진〉 '모여라, 부처님의 꿈동산으로!'를 주제로 열린 합창제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전국 11곳 사찰에서 활동하는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총재 지현 스님은 "아이들의 미소보다 더 고운 꽃은 없고 아이들의 음성보다 더 고운 소리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천진불이라 부른다"며 "여러분은 여기에서 희망 꽃을 피우고 기쁨의 미소를 나누게 될 것"이라 말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장 영산 스님은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창립 이후 어려운 시간도 있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욱 성장한 것 같아 흐뭇하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회복지·청소년단체에 범어사 템플스테이 지원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2월 28일 경내 보제루에서 '템플스테이 협약식'을 개최했다. 범어사 템플스테이 협약은 조계종 종단 3대 핵심 종책 과제 중 하나인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템플스테이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청소년단체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협약 기관은 사단법인 부산불교복지협의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부산청소년지도사협회, 부산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산청소년상담복지협의회, 선우회계세무컨설팅이다. 각 기관은 범어사 템플스테이 이용 시 할인 및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범어사 측은 사회복지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들이 스트레스와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쉼을 얻기를 기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환경보살 결집 '릴레이'로 이어간다

부산환경연대 정기총회서 '초록릴레이 주자단' 출범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할 '초록릴레이 주자단'을 출범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2월 28일 부산 해운대 반야선원에서 2024년 제2회 정기총회 및 '초록릴레이 주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는 창립 이후 환경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와 실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새롭게 활동할 '초록릴레이 주자단'을 창립했다.

'주자단'은 릴레이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현장에서 직접 뛰는 활동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록릴레이 주자단'은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하는 환경보호 활동뿐 아니라 회원 300명 배가운동에 동참할 인재들이다.

총회에는 상임위원 정산 스님과 상임대표 안도 스님, 공동대표 목종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천도 스님을 비롯해 정관 스님(원오사), 정찬 스님(도림사),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신익철 변호사 등이 동참했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창립 이후 많은 활동을 펼쳤다.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도 회원 결집에 힘을 모으고 생명존중 사상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4월 20일 창립식을 봉행했다. 이후 부처님의 생명 평화 사상을 불교 공동체에서 실현하고 지구 생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사찰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열어 환경활동가를 양성했다. 앞으로 생태방생 운동과 지도자 양성 등을 진행하고 낙동강 세계문화유산 추진, 황령산 지키기 등 다양한 환경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